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35
JULY 10 2020

발간년월 2020년 7월 10일 (통권 제135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/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역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북·중·러를 잇는 신규 화물철도 노선 시범운행
- 러, 축치 해 대구의 첫 상업적 어획 허용 계획
- 올해 1~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 4.1% 증가
- 러시아, 극동지역 철도시설 신설 및 개선 추진
- 원자력 쇄빙선 '아르티카' 가을 시범운행 가능
- 중국화물, 아제르 경유 터키까지 최단시간 운송

주요 통계

-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주요 동향



북·중·러를 잇는 신규 화물철도 노선 시범운행

■ 북·중·러를 잇는 신규 화물철도 노선 시범 운행^{a)b)}

- 중국의 지린성 동북아 해상실크로드 해운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,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·중·러를 잇는 신규 화물철도 노선 시범 운행이 실시됨
- 6개 화물을 실은 열차는 6월 26일 훈춘을 출발하여 1시간 후 러시아 극동의 한 기차역에 정차한 후 러시아의 하산의 지선 노선을 거쳐 29일 오후 북한 두만강 역에 최종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음
- 이번 시범운행은 러시아 국가철도 모스크바 본사와 북한 국가철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뤄짐
- 지린성 동북아 해상실크로드 해운회사에 따르면 “화물 해외운송 거리를 최대로 단축했으며, 운송 효율을 높이고, 물류비용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줬다”고 평가했음

■ 북한 나진항을 통한 철도 화물 해상운송도 추진

- 또한, 이 회사는 “향후 이 노선의 잠재력을 더 키우고, 화물 종류 및 쌍방향 운송을 늘릴 것”이라면서 “정책·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북·중 간 해양 냉장열차 운행 가능성을 연구할 것”이라고 했음
- 이 회사는 이 노선이 상시 운행되면 북한 및 유럽과의 협력 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그리고 이번 시범 운행에 대해 “훈춘(중국)-마할리나(러시아)-나진항(북한)-중국 남부 항구를 잇는 철도해상 운송, 그리고 훈춘-러시아 시베리아철도-유럽 국제철도를 잇는 운송노선 구축 연구에도 기술적인 지원을 주었다”고 강조했다

그림. 북·중·러 철도



자료: 매일경제

김지혜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hkim85@kmi.re.kr/051-797-4767)

참고자료

- https://www.upi.com/Top_News/World-News/2020/07/02/China-North-Korea-Russia-test-out-new-freight-rail-line/9051593699000/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- <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view/2020/07/678410/>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
러시아, 축치해 대구의 첫 상업적 어획 허용 계획

■ 지구 온난화로 대구가 북상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축치 해에서 대구의 상업적 어획을 허용하는 계획 검토^{a)b)}

- 지난해 러시아 연방수산해양연구소(VNIRO)가 북극해에서 수행한 해양 자원·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대구가 베링해에서 축치해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남
- 특히, 조사 결과 대서양 가자미가 라프테프 해에서 발견되고,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의 일부 북동해역에서 대구가 발견되었음. 명태도 축치해와 카라해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대서양 바닷물이 다량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어종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함
- 연구진들은 베링해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대구가 베링해협을 통해 축치해로 들어오고 일부는 아마디르 해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함
- 러시아 축치해의 권장된 총허용어획량(TAC)은 6만 8,000MT으로 축치해의 바이오매스 추정치가 89만MT을 감안하면 무리가 되지 않은 수준으로 제안된 대구의 어획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함
- 현재 러시아 정부는 축치해에서 대구의 상업적 어획을 허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으로 올 8월 또는 하반기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

■ 환경론자들은 러시아의 계획은 현재 북극해를 보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섬^{a)b)}

- 미국 정부는 미국 관할 북극 해역에서 새로운 상업 어업을 금지시키고, 2017년에는 10개국 이 중앙 북극해에서 상업어업을 16년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- 세계자연보호기금(WWF) 러시아 지부는 연방수산해양연구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축치해에서 대구의 상업적 어획이 허용되기 전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뤄지고 새로운 보호조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
- 이러한 우려에 대해 WWF 캄차카 프로그램 담당자는 “아직 축치해에서 대구의 상업적 어획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, 승인이 되더라도 어업업체들이 TAC를 할당받으려고 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”라고 덧붙였다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arctictoday.com/russia-is-poised-to-open-the-first-ever-commercial-pollock-fishery-in-chukchi-sea/>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- b) <https://thebarentsobserver.com/en/ecology/2019/11/marine-researchers-find-dramatic-ecosystem-shift-russian-arctic-waters>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
올해 1~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 4.1% 증가

■ 1~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9,040만 톤이며, 작년 동기 대비 4.1% 증가^{a)}

- 러시아 무역항 협회는 건화물은 5억 6,350만 톤(+3.7%), 액체화물은 3억 4,060톤(+4.9%)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함
- 올해 1~5월 보스토치니항 물동량은 총 3억 2,910만 톤이고, 작년 동기 대비 7.6% 증가함
- 바니노항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% 증가해 1억 3,660만 톤을 기록했고, 나호트카항은 1억 1,33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.9% 증가했으며, 브리고로드노항 또한 7.6% 증가해 7,460만 톤을 기록함
- 반면, 블라디보스톡항 물동량은 9,26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.1 % 감소했으며, 데 카스트리항 역시 작년 동기 대비 4.1% 감소해 5,710만 톤을 기록함
- 기타 항만 물동량은 1억 7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.1% 증가함
- 작년 1~5월 물동량 증가율은 2%였으나, 올해는 7%에 달함

■ 올해 5월 극동 지역의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.4% 증가^{b)}

- 작년 동기 대비 수입화물은 5.6%, 수출화물은 14.3% 증가했으나, 연안화물은 통과화물은 각각 1.2%, 20.7% 감소함
- 올해 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의 28.9%를 차지함
-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보스토치니가 33.6%, 바니노가 16.3% 나호트카가 10.9% 차지함
-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 중 48.2%는 석탄과 코크스였으며, 22.9%는 석유가, 6.5%는 석유제품이 차지함
-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화물종류는 곡물이었으며, 작년 동기 대비 2.5배 증가했음
- 반면 금속가루는 33.9%, 화학제품은 71.3% 가량 감소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portov_dalnevostochnogo_bassejna_rf_v_yanvare-mae_2020_goda_vyros_na_4_1.html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- b)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6250-gruzooborot-portov-dalnevostochnogo-bassejna-rf-v-yanvare-mae-2020-goda-vyros-na-41/>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
러시아, 극동지역 철도시설 신설 및 개선 추진

■ 러시아 정부는 올해 안에 극동지역에 새로운 철도시설을 건설하고,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^{a)b)}

-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실은 7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안으로 1,220억 루블 이상을 투자해 기존의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몇몇 시설들은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 밝힘
-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러시아철도공사 산하의 16개 자회사 중 하나로, 2019년 기준으로 연해주에서 사하 공화국에 이르는 총연장 6871.4km의 철도 노선과 443개의 기차역 및 대피선(Passing loop)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
-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연방 정부에 국가기반시설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, 구체적인 지원 대상 중 하나로 러시아철도공사(RZD)의 철도기반시설 발전계획을 언급함
- 러시아철도공사는 2013년부터 자바이칼 지방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회사들의 철도화물 수송량 증대에 방해가 되는 병목 구간들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철도기반시설 발전계획을 추진해왔는데, 2019년까지 총 64개의 기차역과 대피선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·보수됐음

■ 이번 계획에는 기차역·대피선과 교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설물들의 개·보수 및 신설도 포함됨

- 올해엔 총 68개의 철도시설이 신설되거나 개·보수될 예정이며, 특히 아무르주, 유대인 자치주, 하바롭스크 변방지역 등의 지역에 14개의 기차역과 4개의 대피선이 신설되고 2개의 대피선이 개수될 것임
- 이에 더해 바이칼-아무르 철도(BAM)와 사할린섬의 철도를 따라 총 23개의 교량이 건설될 계획이며, 유대인 자치구 내 비로비잔(Birobidzhan)과 레닌스크 사이의 회선 복구, 하바롭스크의 비로비잔-1역과 비로비잔의 비로비잔-2역 구간의 전철화 및 연해주 나홋카역의 인도교 건설도 함께 이뤄질 예정임
- 한편, 이러한 철도개발의 하나로 올해 이미 12대의 새로운 기관차가 유대인 자치주 내의 블로차예프카-2에서 하바롭스크 변강의 바니노 시를 잇는 구간에 투입된 바 있음.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이를 통해 바이칼-아무르철도(BAM)에서 운행하는 화물열차의 조차 작업 비용이 경감되고, 바니노 물류 허브로의 화물 운송물량이 1.5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

그림. 러시아 극동지역 철도 노선도



자료: https://dvzd.rzd.ru/static/public/ru?STRUCTURE_ID=22&layer_id=3290&refererLayerId=162&id=15

이준용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charmant9430@hufs.ac.kr)

참고자료

- <https://tass.ru/ekonomika/8866677> (검색일: 2020년 7월 6일)
- <https://www.rzd-partner.ru/zhd-transport/news/rzhd-poluchili-podderzhku-planov-po-infrastrukturnomu-razvitiyu-ot-pravitelstva-rf/> (검색일: 2020년 7월 6일)

원자력 쇄빙선 ‘아르티카’ 가을 시범 운항 가능

■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 22220 프로젝트 ‘아르티카’의 전기 모터에 결함이 발생

- ‘아르티카’는 해상시험 중 전기 모터 일부에 결함이 발생해 올해 시범운항이 불투명했음
- ‘아르티카’는 선체 결함 검사 이후, 6월 다시 쇄빙선의 해상시험을 시작하기로 함. 6월말까지 해상시험을 위해 출항할 것이며, 기간은 대략 3주가 소요될 것임

■ 이 쇄빙선은 올 가을 제한된 기능으로 시범운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- 선박의 해상시험 완료 후, 다시 입항해 선체 검사를 완료하기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될 예정임
-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(Komersant)에 따르면, 원자력 쇄빙선 프로젝트 22220 ‘아르티카’가 올해 9~10월에 시범운항이 가능할 수 있음
- 하지만, 전기 모터와 관련된 일부 기능이 제한될 것임. 예상되는 소요 전력은 8~12MW이며, 2021년 8월 엔진이 교체될 예정임

그림.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 호 모습



자료: <https://naked-science.ru/article/tech/v-rossii-ozvuchili-novyj-srok-sdachi-atomnogo-ledokola-arktika>

김지영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iyeong111@kmi.re.kr/051-797-4765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atomnyy_ledokol_arktika_mogut_sdat_v_ogranicheniy_ami_v_2020_godu.html (검색일: 2020년 6월 15일)
- b) <https://naked-science.ru/article/tech/v-rossii-ozvuchili-novyj-srok-sdachi-atomnogo-ledokol-a-arktika> (검색일: 2020년 7월 9일)

중국 화물, 아제르 경유 터키까지 최단시간 운송

■ 터키행 중국 화물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항에서 국경 도시 비요크 케시크(Boyuk Kesi k)역까지 14시간 만에 도착하였음

- 중국을 출발해 터키로 가는 화물이 바쿠항에서 국경인 비요크 케시크역까지 최단시간에 통과함. 운송시간은 기존과 비교해 10시간이 단축된 약 14시간이 소요되었음(평균 24시간 소요). 또한, 터키의 일부구간을 50시간 만에 통과해 예정보다 총 70시간이 단축됨
- 아제르바이잔, 카자흐스탄, 조지아 및 터키의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트랜스카스피 운송 컨소시엄은 호르고스(Khorgos)역(중국-카자흐스탄 국경)에서 코세코이역(터키)까지 단 12일 만에 43개의 컨테이너 열차를 운송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음
- 다양한 화물을 적재한 40피트의 컨테이너 열차는 알트인콜(Altinkol)역을 거쳐 카자흐스탄 악타우(Aktau)항을 지나 바쿠항에 도착함
- 이곳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바쿠(BAKU)-트빌리시(Tbilisi)-카르스(Kars)를 연결하는 BTK 철도를 따라 터키로 출발했음

■ BKT 철도는 바쿠(아제르바이잔)-트빌리시(조지아)-카스(터키)를 연결하는 철도로 향후 승객 수송량과 물동량이 증가할 것임

- BKT 철도는 2007년 아제르바이잔-조지아-터키 국가 간 철도사업 협정에 따라 건설되었는데,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0월 30일에 개통되었음
- BTK 철도는 연간 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며, 물동량은 650만 톤임. 향후 매년 300만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것이며, 물동량은 2,0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
- 국제 트랜스-카스피 운송 컨소시엄에는 “ADY Container”(아제르바이잔), “KTZ Express”(카자흐스탄), “GR Logistics”(조지아) 및 “Pacific Eurasia Logistics”(터키)가 포함됨
-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, 컨소시엄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, 동서 노선 철도의 상품 운송을 지속한다는 방침임

그림. 바쿠~트빌리시~카르스 연결 노선



자료: file:///C:/Users/KGY/Downloads/101042_SERVICE%20(2).html

김지영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iyeong111@kmi.re.kr/051-797-4765)

안은형,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
(dksdmsgud6@naver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az.sputniknews.ru/economy/20200707/424376190/china-gruzy-rekord-azerbaijan-turkey.html>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- b) file:///C:/Users/KGY/Downloads/101042_SERVICE%20(2).html (검색일: 2020년 7월 7일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9/2020 증가율
극동지역	11.94 (+1.0%)	6.95 (+4.0%)	18.89	+2.2%
북극해	2.45 (-7.2%)	5.82(-3.3%)	8.27	-4.4%
발트해	9.35(-1.8%)	13.36(+7.0%)	22.71	+3.3%
아조프-흑해	9.44(+14%)	12.97 (+5%)	22.41	+8.3%
카스피해	0.35 (+46.3%)	0.42 (+17.0%)	0.77	+28.7%
합계	33.52(%)	39.53(%)	73.05	+3.7%

* 주: 극동지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울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참고자료

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pervyy_kvartal_vyros_na_2_4_do_207_08 mln_t.html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b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-aprel_vyros_na_3_7_do_280_13 mln_tonn.html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364383.60	76406.30	1759.00	1153.00	366142.70	77559.3
광물 제품	1399319.70	16961.30	45324.00	47020.80	1444644.10	63982.00
연료 및 에너지 제품	1336125.60	15806.00	98.40	0.00	1336224.00	15806.00
생고무 및 화학 제품	4321.80	54649.40	764.40	783.60	5086.10	55432.90
가죽원료, 모피 제품	0.60	886.00	0.20	14.00	0.90	900.10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84801.70	7940.30	683.20	34.80	85484.90	7975.10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3254.00	57295.50	75.90	716.40	3329.90	58011.90
금속 및 금속 제품	12828.20	45278.90	57.90	1367.30	12886.00	46646.20
기계류	-3123.3	314021.60	1275.20	814.10	-1848.2	314835.70
기타	21132.40	29744.30	91938.70	240.90	113071.00	29985.10
합계	3,226,167.60	618989.60	141976.90	52,145	3366869.60	593,575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-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, 2020년 1~3월 기계류 수출누적규모는 96,207,100톤이며, 1~4월 수출누적규모는 94,358,900톤임

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ru/folder/230467>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천 톤, 달러)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냉동어	158,461	210,165.5	2,462	3,749.9	181	201.8			158,641	210,367.3	4,991	3,744.3
연어류	3,762	7,055.9	-	-	-	-	-	-	3,761	7,055.9		
넙치	579	2,548.7	-	-	-	-	-	-	579	2,548.7	-	-
가자미	7,899	1,902.2	-	-	-	-	-	-	2,077	1,902.2	-	-
가자미류	2,142	2,102.9	-	-	-	-	-	-	2,142	2,102.9	-	-
청어	2,880	1,798.4	-	-	81	63.6	-	-	2,961	1,862	-	-
대구	6,878	18,036	-	-	-	-	-	-	6,878	18,036	-	-
명태	123,708	132,860.9	-	-	80	115.0	-	-	123,788	132,975.9	-	-
농어	19	44.7	-	-	-	-	-	-	19	44.7	-	-
간, 곤이 (어란)	9,382	35,440.4	-	-	-	-	-	-	9,382	35,440.4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781	1253.7	-	-	-	-	-	-	781	1253.7	-	-
생선 필렛, 어육	6,965	20,293.9	89	383.5	14	30.6	-	-	6,979	20,293.9	89	383.5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-	1.1	116	630.8	-	1.5	-	-	-	2.6	116	630.8
갑각류	5,533	92,752.4	-	-	-	-	-	-	5,532	92,752.5	-	-

계류	4,694	86,498.6	-	-	-	-	-	-	4,694	86,498.5	-	-
조개류	629	1,080.4	-	-	-	-	-	-	629	1,080.4	-	-
가리비	488	796.1	-	-	-	-	-	-	488	796.1	-	-
오징어류, 문어류	141	284.3	87	444.8	-	-	-	-	141	284.3	87	444.8
수산 무척추 동물	778	2,389.1	-	-	-	-	-	-	778	2,389.1	-	-
성게류	160	421.1	-	-	-	-	-	-	160	421.1	-	-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ru/folder/230467>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